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소비자물가지수 상승지속

- 중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식료품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32개월 만에 가장 높은 5.4%대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.
 - 중국국가통계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동기대비 5.4% 상승하고 1/4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5.0% 상승했다고 발표.
 - 이러한 추세가 2분기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%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.
 - 중국 국내 식료품가격과 주택가격 상승이 3월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,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더불어 중국의 수입물가도 물가상승을 견인.
 - 한편 국가통계국이 최초로 발표한 전기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련의 물가억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제기됨.

- 중국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4%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출금리인상, 기준율인상, 가격 개입 등 강력한 물가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긴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에 있음.
 - 중국이 4월에 대출금리와 기준율을 각각 0.25%p, 0.5%p 인상하였고, 이러한 긴축정책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 - 통화수단 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적 가격 개입을 계속하고 있음.
 - 중국정부는 긴축정책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%까지 하락할 것으로 판단함.
 - 그러나 일부전문가들은 기준율 인상의 물가안정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위안화 절상이 불가피하며 위안화 절상폭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임.

(중재망 등, 4/13)